

번역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외국어

○ ○

독일어-맑엔이 독일 사람(쾰주도 활동한 지역은 독일)이니 당연히 알아야 함. 전집(Marx Engels Werke)은 동독의 디츠 출판사(Dietz Verlag)에서 나온 바 있음. 요즘 진행되는 MEGA(Marx Engels Gesamtausgabe)는 최근 대세이기는 한데 한국어 번역 작업(강신준, 김호균 교수 등)이 지지부진함. 레닌 전집(Lenin Werke)도 독어로 같은 디츠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철학 저서 번역할 때 많이 참고하는 걸로 앎.

영어-세계 공용어인 만큼 당연히. 맑엔의 주요 활동지가 영국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 것. 특히 자본론은 맑스 사후 엥겔스가 영어로 교정 편집까지 했고 생전에도 영어로 된 글들 많이 나왔음. 영역본 전집(MECW, Marx Engels Collected Works)은 구소련 프로그레스 출판사(Progress Publishers)에서 나온 걸 정본으로 많이 씬. 레닌 전집(Lenin Collected Works)도 국내에서 번역할 때 중역이지만 접근성 때문인지 많이 참조함(구 전진본 저작집이랑 아고라 전집은 모두 영역본 중역임). 인터넷 맑시스트 아카이브로도 접근 가능하고 편리함. 그밖에 중국 외문출판사(Foreign Language Press)도 영역본 나와서 많이 참고하더라

일본어-이 동네는 이미 1930년대에 맑엔전집(改造社) 나온 나라다. 번역덕후인 만큼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그만큼 전집 선집 다 나옴. 전집은 주로 오오쓰키 쇼텐(大月書店)에서 나온 걸로 사용함(이 출판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전집 서비스 제공함). 국내에서도 참고용으로 많이 쓰고 예전에는 일본어판을 저본으로 한 중역이 대세였음. 이밖에도 이와나미(岩波), 신일본출판사(新日本出版社, 일본 공산당 관련 출판사)도 참고용으로 쓴다면 좋을듯.

프랑스어-맑엔 생전에 모두 프랑스어를 쓸 줄 알았고, 특히 불어본 자본론 1권은 맑스가 직접 교정 교열한 걸로 유명. 갈리마르 출판사(Galimard)가 편집한 불어본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듯함(박종철출판사 저작선집도 편집할 때 참고했다 함).

러시아어-레닌의 모국어 만큼, 당연히 원문에 보다 가까운 번역을 위해서라면 알 필요가 있지만 국내에 러시아어 구사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. 당장 러시아어 직역으로 나온 건 박종철출판사에서 나온 3권에 불과함. 물론 이러한 현실적 한계도 있지만 참 아쉬운 게 레닌이나 스탈린 책들은 그냥 프로그레스 영어본 참고해서 중역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짙더라

한국어-가장 유명한 건 당연히 박종철출판사 저작선집과 전진 저작집(자본론은 김수행, 강신준, 채만수 등). 지금도 국내 연구서는 이 책들에 빔을 지고 있다. 그리고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노력해 온 연구자들과 번역자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. 북한 쪽 연구는 읍읍(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참조)